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움 「소셜워커 양성의 방향 - 전문성을 높여 직역확대와 대우향상을 향해-」 개최의 취지에 대해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생활과학연구과 白澤政和 (시라사와 마사카즈)

이번 한일학술교류 심포지움 「소셜워커 양성의 방향 - 전문성을 높여 직역확대와 대우향상을 향해-」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단순히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넓게 소셜워커의 양성교육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향상시키며 또한 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하고 싶다. 그것에 대해 양국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소셜워커 양성에 관한 심포지움은 이번이 3 번째 개최이다. 제 1 회 오카야마 대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양성교육의 현상이 제시되어 한국에서는 취로후의 계속교육이 의무화되어, 일본에서는 커리큘럼과 실습·연습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동시에, 양국 모두 소셜워커의 사회적 대우가 매우 나쁘다는 것이 보고된 제 2 회 한국 서울 심포지움에서는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양성교육에 대해 상호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계속교육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베이스로 해서 캐리어패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국이 진행되고 있는 동향에 서로 관심을 높여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상을 통해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양국에 있어 대학원 교육과 계속교육도 포함하여 대학교육으로부터 관리자가 되는 과정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셜워커 양성교육의 계속적인 방향을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일본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의 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캐리어패스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연결해 가고자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계속교육의 실적을 바탕으로 동시에 몇 가지의 전문직대학원의 실적을 바탕으로 어떠한 소셜워커 양성교육의 캐리어패스를 나타낼 수 있을가를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로서 서두에서 말한 양성교육의 추진과 사회적 대우개선이 각각 나누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가면서 일체적으로 진행해 갈 것에 대해, 일정 결과가 얻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더해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사회공작원이라는 명칭의 소셜워커 국가자격이 생겨났으나 중국 대학에서의 소셜워커 양성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중국측에서 지정토론자로서 코멘트를 받아, 지난 2 번의 심포지움보다 조금 더 넓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번역:세종사이버대학교 임효연)